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301

JCCT 2018-11-38

##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와 삶의 만족도

### Transition in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백옥미\*

Ok Mi Baik \*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 궤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종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4차년도(2005-2011) 자료를 활용, 1-4차년도 조사당시 거주형태를 측정, 두 시점간 거주형태 변화 유형을 16개 유형으로 구분,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적용해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조사시점에서 부부상태를 유지했던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또한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자녀와의 동거는 부부가 함께 동거했을 경우에만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을 뿐 홀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독거를 지속한 가구보다도 오히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의 궤적과 대표적 심리적 복지 개념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거주형태, 삶의 만족도,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 종단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in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secondary data of 2 waves(2005-2011) of a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from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categorized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 over time into 16 categories and used generalized the estimation equation(GEE) modeling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 group membership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ransition in living arrangement in old age was part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In particular, the best living arrangement type in older adult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was the coresidence with spouse compared with residence alone or residence with their children. The group of residence with their children was not related to higher satisfaction.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 behind older people's trajectory in transition in living arrangement.

**Key words** : living arrangement, life satisfaction,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old age, longitudinal study

#### 1. 서 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중 노인독거가구가 23%, 노인부부가구가 44.5%, 자녀동거 가구가 28.4%로 나타나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노인만으로

\*정회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접수일: 2018년 8월 16일, 수정완료일: 2018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4일

Received: August 16, 2018 / Revised: September 13, 2018  
Accepted: October 4, 2018  
\*Corresponding Author: omb@kunsan.ac.kr  
Dept. of Social Welfare,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이루어진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는 1994년 같은 조사에서 노인독거 가구가 전체의 13.6%에 불과했고 노인부부가구가 31.7%, 자녀동거 가구가 54.7%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년기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는 노인가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고령화를 경험하고 사회보장정책이 잘 갖추어진 선진사회와 달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미흡한 우리의 경우 세대간 가족지원이 중요한 노후 생활보장의 원천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경제적 자원이 적고 일상활동의 제한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세대간 동거를 통한 가족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부부노인가구나 자녀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경제적 수준도 낮고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 전반적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왔다[2]. 더욱이 독거노인의 경우 일반노인들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3], 노년기 거주형태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년기 거주형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영향력을 규명한 선행 연구들은 거주형태를 분류함에 있어 독거노인 대 일반노인으로 나눠 비교하거나 독거노인, 부부, 자녀동거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해 노인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4]. 특히 선행연구는 대부분 횡단자료를 이용해 거주형태별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종단자료를 활용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돼 왔다. 일부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5]의 경우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양상을 배우자동거 지속여부와 자녀동거 지속 여부로 분류, 이러한 거주형태 변화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차이를 규명했을 뿐 거주형태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취합된 패널자료를 활용,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가 성공적 노화의 지표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 거주형태와 그 영향

노년기에 거주형태는 단순히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는 물리적 차원을 떠나 가족 상호작용의 용이성, 세대간 유형, 문화적 기대나 규범 등의 복합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년기 심리적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접근에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거주형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독거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 자원 접근정도 등 삶의 질 수준이 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더 열악하며[2], 신체건강 수준이 낮고[6],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

자살이론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된 소속감은 고독감을 유발하여 죽음에 대한 욕구를 발전시킨다[8]. 고립되어 살고 있는 독거노인은 고독한 생활과 함께 빈곤으로 인한 무망감과 절망감을 조성하는데 익숙한 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이는 자살로 이어진다[9]. 실제 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자살희생자의 비교연구에서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보다 노인자살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독거가구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부가구가 행복감이 비교적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10].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거주유형이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며, 거주가구 유형 그 자체보다는 노인의 건강,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행복감이나 고독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기도 하다[11].

본 연구가 주목하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거주형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독거노인이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13]. 독거노인들은 만성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 등을 경험함으로써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특히 다수의 연구들은 또한 자녀와의 동거가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해왔으나[15], 최근의 연구들은 부부거주 가구가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해서

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 2. 노년기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1990년대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함께 소개된 개념이 삶의 만족도 혹은 생활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실제로 향유하는 객관적 환경조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부적 기준을 가지고 현재 처해진 상황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인지적 과정'[16], 혹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12]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성공적 노화의 핵심 개념인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면서 그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해왔다. 그 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인구사회학적, 가족관계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적 요인 중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아울러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 역시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등 사회활동 모임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9], 아울러 자원봉사활동[20], 종교활동[21]을 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의 연구들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주목하였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가족 및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22]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규명하면서 주로 심리사회적, 신체적,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으며, 노년기 거주형태와 노년기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하였다. 특히 노년기 거주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시점의 횡단자료를 활용, 노년기 거

주형태 결정요인을 찾으려는데 집중해온 경향이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한 시점에서 발견되는 노인들의 거주형태 차이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연결시켜 이해하려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횡단적 접근은 시간축을 둘러싼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를 포착하면서 이러한 거주형태 변화가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 엄밀성을 확보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와 삶의 만족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연금 및 고령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천여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8,600여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4차년도(2005-2011) 자료를 활용, 양 조사시점에 응답한 사람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N=4779).

### 2. 측정

####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는 생활전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측정되어졌다. 1~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거주형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6개의 집단이 생성되어졌다.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지속적으로 독거가구라고 응답한 집단(독거→독거)을 비롯, 1차년도에 독거가구였다 4차년도에 부부가구라고 응답한 집단(독거→부부), 독거가구였다 재혼하고 자녀와 동거하게 된 가구(독거→부부&자녀)로 변화한 집단, 독거가구였다 자녀와 동거하게 된 가구(독거→홀로&자녀)로 변화한 집단, 1차년도에 부부가구였다 4차년도에 독거가구가 된 집단(부부→독거), 부부가구로 지속된 집단(부

부→부부), 부부가구였다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게 된 집단(부부→부부&자녀), 부부가구였다 홀로 자녀와 동거하게 된 집단(부부→홀로&자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다 독거하게 된 집단(부부&자녀→독거), 부부와 자녀 동거가구였다 부부만 남은 집단(부부&자녀→부부), 부부와 자녀동거가구가 지속된 집단(부부&자녀→부부&자녀), 부부와 자녀동거가구였다 홀로 자녀와 동거하게 된 집단(부부&자녀→홀로&자녀), 그리고 홀로 자녀와 동거하다 독거하게 된 집단(홀로&자녀→독거), 홀로자녀동거하다 부부가 된 집단(홀로&자녀→부부), 홀로자녀와 동거하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게 된 집단(홀로&자녀→부부&자녀),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와 동거를 지속한 집단(홀로&자녀→홀로&자녀) 등이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신체건강이 투입되었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가계총소득액이 사용되었다. 신체건강은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궤적별 삶의 만족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개 조사시점동안 측정된 거주형태 차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라는 정신건강 결과를 측정하는 종단연구로서 반복측정된 자료를 다루는 통계 기법이 요구된다.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은 패널간 또는 전체 패널자료의 인과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데, 특히 이 모형은 정규분포로부터 이탈하는 다변량 변수에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한 것으로, GLM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반복측정 시계열 자료를 다루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23]. 이 방법은 또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이의 연결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반응변수의 주변분포 및 관찰된 상관관계 구조를 통해 유사 우도함수에 근거한 점근적 추정량을 산출할 수 있어 범주형 반응변수가 반복 측정되어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24]. 통계 분석은 PASW 24.0 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거주형태 변화그룹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자는 총 4779명이었다. 조사기간인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구형태의 변화 없이 부부가구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6%인 1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2세대 동거 지속가구가 25.7%(1227명) 순이었다(표 1. 참조). 계속 독거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591명으로 전체의 12.3% 정도였으며 부부가구였다 독거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전체의 4.3% (204명) 수준이었다.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차 시점 당시 약 67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약 58.4%)이 남성(약 41.6%)보다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52.5%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20.2%, 대졸 이상은 약 8%에 불과했다. 가구총소득은 4차년도 당시 연평균 2517만원을 보였다. 생활만족도는 1차년도 보다 4차년도에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1차년도에 평균 3.16점이었던 것이 4차년도에 3.24점으로 0.8정도 상승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N=4779)

구분	N(%)	p/카이제곱/F값
연령4		<.001
평균(SD)	67.0(8.5)	
성별		<.001
남성	1849(41.6%)	
여성	2508(58.4%)	
교육수준4		<.001
<초졸	2508(52.5%)	
중졸	926(19.4%)	
고졸	954(20.2%)	
≥대졸	387(8.1%)	
총소득4	2517만원(0-29168)	<.001
신체건강4	2.90	<.001
만족도1	3.16	<.01
만족도4	3.24	<.001

독거였다 자녀와 함께 동거하게 된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하락했으며 부부만 살다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게 된 집단과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다 독거

하게 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하락했다. 독거지속 가구의 경우 생활만족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였으나 4차년도에 다소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부부로만 구성된 집단이었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와 홀로자녀와 동거하다 4차년도에 부부만 살게 된 집단에서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4차년도에 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부부였다 홀로자녀동거를 하는 집단(2.9점)이었고 다음이 독거가구였다 홀로자녀와 동거하게 된 집단(2.94점), 홀로 자녀와 동거하다 독거하게 된 집단(2.96점) 순이었다. 이처럼 독거하게 되거나 홀로 자녀와 동거하게 된 집단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기는 했으나 다만 의외의 점은 부부가구였다 독거하게 된 집단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생활만족도 수준이 아주 약간 상승하였다. 따라서 초기 어떤 가구형태를 가졌냐에 상관없이 마지막 조사시점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형태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거주형태 변화별 삶의 만족도 변화  
 Table 2. Changes in satisfaction of life by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N	삶의 만족도_1	삶의 만족도_4
전체 (평균)	4779	3.16	3.24
독거→독거	591	2.8	3.0
독거→부부	6	2.83	3.67
독거→부부&자녀	1	3.0	3.0
독거→홀로자녀동거	31	3.19	2.94
부부→독거	204	2.91	3.04
부부→부부	1722	3.26	3.30
부부→부부&자녀	132	3.33	3.27
부부→홀로자녀동거	10	2.6	2.9
부부&자녀→독거	38	3.05	2.97
부부&자녀→부부	523	3.27	3.41
부부&자녀→부부&자녀	1227	3.27	3.33
부부&자녀→홀로자녀동거	42	3.05	3.07
홀로자녀동거→독거	45	2.75	2.96
홀로자녀동거→부부	6	3.5	3.67
홀로자녀동거→부부&자녀	5	2.8	3.6
홀로자녀동거→홀로자녀*	196	2.64	2.88

2. 거주형태 변화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표 3은 본 연구의 주 목적인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일반화추정방정식모

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홀로&자녀동거→홀로&자녀동거집단을 참조그룹으로 일반화추정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거→독거집단을 비롯, 독거→부부집단, 부부→독거집단, 부부→부부집단, 부부→부부&자녀집단, 부부&자녀→부부집단, 부부&자녀→부부&자녀집단, 홀로&자녀→부부집단, 홀로&자녀→부부&자녀집단 등 9개 집단의 생활만족도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차년도에 부부가구가 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 독거상태였다가 4차년도에 부부가구가 된 집단 (B=0.524, p<.05), 부부가구를 지속한 집단(B=0.414, p<.001), 홀로 자녀와 동거하다 부부가구가 된 집단 (B=0.633, p<.001)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홀로 자녀와 동거하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동거하게 된 집단(B=0.472, p<.05)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통제변수 중에는 여성일수 록(B=0.048, p<.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0.044, p<.001), 그리고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B=5.370, p<.001),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B=0.317, p<.001)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 거주형태 변화별 삶의 만족도: GEE 분석결과  
 Table 3. Satisfaction of life by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the results from GEE

변수	삶의 만족도	
	B	SE
독립변수		
독거→독거	0.275***	0.053
독거→부부	0.524*	0.215
독거→홀로자녀동거	0.154	0.120
부부→독거	0.336***	0.062
부부→부부	0.414***	0.048
부부→부부&자녀	0.266***	0.067
부부→홀로자녀동거	-0.068	0.169
부부&자녀→독거	0.058	0.138
부부&자녀→부부	0.352***	0.053
부부&자녀→부부&자녀	0.232***	0.050
부부&자녀→홀로&자녀	0.131	0.139
홀로&자녀→독거	0.094	0.108
홀로&자녀→부부	0.633***	0.114
홀로&자녀→부부&자녀	0.472*	0.206
홀로&자녀→홀로&자녀*		
통제변수		
연령	0.001	0.001

성별	0.048*	0.022
교육수준	0.044***	0.009
가구총소득_4차	5.370***	5.326
신체건강	0.317***	0.017

\* = reference group,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 론

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대표 지표인 삶의 만족도에 거주관련 요인이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마지막 조사시점에서 부부상태를 유지했던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 독거상태 였다가 4차년도에 부부가구가 된 집단을 비롯, 부부가구를 지속한 집단, 홀로 자녀와 동거하다 부부가구가 된 집단, 홀로 자녀와 동거하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동거하게 된 집단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1차년도에 여전히 부부관계였던 사람 외에도 독거하거나 홀로 자녀와 동거한 집단 등 애초에 어떤 집단이나에 상관없이 부부관계로 변모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를 볼 때 인생 후반기 삶의 만족도에 배우자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제반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건강관련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구형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노년기 거주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노년기 독거가구에 비해 부부가구 및 자녀동거가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12]. 이같은 결과를 통해 노년기 황혼이혼의 가능성을 줄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이혼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강화는 물론 부부가구에서 이탈한 가구를 중심으로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년기의 다양한 생애주기적 이슈

에 대처해 나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년기 행복한 부부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노년기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자녀와의 동거는 부부가 함께 동거했을 경우에만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을 뿐 홀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독거를 지속한 가구보다도 오히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자녀동거가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같은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즉,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롭게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원하는, 신노년층이 많아진 최근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달라진 부양의식 및 가족가치관과 함께 최근들어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가 실제로 정서적, 경제적 지지의 형태 보다는 오히려 손자녀 양육 부담 등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결과라 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결과 독거노인가구 보다 혼자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형태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볼 때 독거가구에 대한 지원위주의 현 노인정책은 좀더 면밀한 분석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독거가구 지원정책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가구에 집중된 정책들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이 사는 배우자 없는 노인들에게도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득 및 질환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현행 방식 외에도 노년기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정서적 고립감, 불안, 위기 대응의 취약성 등 개별 욕구에 기반해 독거여부에 상관없이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련의 조사에서 드러났듯 향후 노년기 가구유형이 점차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 역시 기존의 부부 및 자녀동거 부양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노인가구’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하나의 주요 정책 단위로 보고 이들 노인가구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공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유형 간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의 차이를 규명하였을 뿐 연구 결과가 인과관계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에 거주형태가 정신적 건강에 중요하며, 노년기 대표적 복지 지표인 삶의 만족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온 본 연구결과 역시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본 연구의 방법론이 정확히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 수집된 전국 규모의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주는 사례 수가 작아 통계 결과 비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거주형태를 4가지로 나누면서 이의 변화상을 포착하기 위해 1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 시점에 독거가구였다 4차 시점에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변화한 그룹의 숫자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되는 등 분포의 차이가 큰 표본을 활용하였다는데서 결과 해석에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표본 패널자료를 활용해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양상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규명, 노년기 거주형태의 중요성을 보다 면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노년기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자녀의 분가 및 귀환과 손자녀를 통한 가족의 확대 등 거주형태가 역동적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주형태의 역동적 측면이 고려되어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규명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는 이러한 요인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7년의 시간을 두고 수집된 2개 조사 시점 간 거주형태의 변화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본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References

- [1]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ety Affairs(2014).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ety Affairs.
- [2]Ahn, K.(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n Social Support of Elderly Couple and Single Elderly Households, The Korean Gerontology, 25(1), 1-19.
- [3]Lee, B. & Oh, Y.(2008).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y, 46(10), 49-57.
- [4]Jung, J.(2013). Comparison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type of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9(12),115-122.
- [5]Kim, J.(2007). Analysis of the change of living arrangement in old age using panel data, Korea Demography, 30(1), 1-24.
- [6]Jung, K.(2015). Living Environment and Policy Tasks of Elderly Couple's Households, Health and Welfare Forum, 4, 58-68.
- [7]DeJong, T., Overholser, J., & Stockmeier, C.(2010), Apples to Oranges? : A Direct Comparison between Suicide Attempters and Suicide Complet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4 : 90 - 97
- [8]Baumeister, R., & Leary, M.(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 497-529.
- [9]Perissinotto, C., Stijacic Censer, I., & Covinsky, K.(2012), Loneliness in Older Persons : A Predictor of Functional Decline and Death Loneliness in Older Person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72(14) : 1078-1083
- [10]Kim, S.(2009). A Study on the Elderly Living Environment Needs, Journal of study on Gerontology welfare, 43, 157-181.
- [11]Yang, S. & Hong, S.(2003). The effect of the living and living type of elderly I rural area on psychological lonelin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1(6), 129-139.
- [12]Kwon, J. & Cho, J.(2000).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The Korean Gerontology, 20(3), 61-76.
- [13]Lee, M., Kim, J. & Kang, J.(2011). A Study on

-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Science*, 29, 41-67.
- [14]Choi, Y.(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Types of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study on Gerontology welfare*, 29, 123-149.
- [15]Kang, E.(2005). Factors related to suicidal thoughts by age group, *Health and Welfare Forum*, 16(5), 81-86.
- [16]Lawton, M. P.(1991). A Multidimensional view of quality of life in Frail Elders. In J. E. Birren, et al.,(Eds.),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pp. 32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17]Fiori, K. L., Antonucci, T. C., & Cortinas, K. S.(2006). Social network typologie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61B(1), 25-32.
- [18]Lee, J.(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Disabled People Register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study on Gerontology welfare*, 47, 187-212.
- [19]Heo, S. & Kim, J.(2011). Multidimensional Impact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e Elderly Panel Survey in 2006, *The Korean Gerontology*, 31(2), 407-418.
- [20]Baik, O.(2014).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trajectory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in old age, *Journal of study on Gerontology welfare*, 66, 329-351.
- [21]Son, U.(2007). Life Satisfaction due to Religious Change, *Journal of study on Gerontology welfare*, 36, pp.181-200.
- [22]Kang, S. & Back, H.(200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riends Network and Psychologic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8, 117-139.
- [23]Zeger, S. L. & Liang, K. Y. (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for discrete and continuous outcomes. *Biometrics*, 42, 121 - 130.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2531248>.2014.10.2.
- [24]Yim, H., Kim, Y., Jung, Y., Sung, S., Ahn, J., No, K. et al.(2004). GEE analysis of clinical trial data for evaluation of new analgesics in patients with degenerative arthritis,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37(4), 381-389.